

2025 구역회의를 위한 감독님의 메시지

북일리노이 연회와 위스콘신 연회의 2025 년 구역회의를 위해
댄 슈어린(Dan Schwerin) 감독이 준비한 영상 메시지의 원고입니다.

먼저 감사의 인사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특히 혼란스러운 시기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평화와 임재를 여러 방면으로 나누어 주시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두 연회 모두에서 분담금(apportionment) 납부가 증가한 것에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새로운 소명을 발견하여 섬김으로 나아가게 하고, 개체 교회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사역 프로그램과 관계를 개발하며, 회중 개발을 위한 지원과 코칭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사역이 더 창조적이고 은총이 넘치도록 도와줍니다.

지난 1 년 동안 교회 방문할 때 마다 여러 번 교인들이 “아, 지난 구역회의 영상에서 본 분이군요!”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실제로 보니 훨씬 더 좋아 보이시네요!”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 모두를 직접 뵈 수 있는 날을 고대하지만, 지금은 구역회의 시즌을 맞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시작하며, 우리의 사역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올 한 해 여러분이 이루신 선한 영향에 감사드리며, 내년을 소망 가운데 바라봅시다.

구역회의는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고, 성취를 점검하며, 누가 제자 훈련과 리더십, 섬김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기회입니다. 또한 예산이 도덕적 문서이고 여러분의 돌봄의 범위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저는 이러한 투명성이 주는 건강한 책임감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30 편 5 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 시편은 밤을 위한 시편입니다. 시인들과 예언자들은 우리의 ‘밤 기도’와 ‘영혼의 어두운 밤’에 대해 아름답게 말해왔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는, 부활의 은혜 깊은 이야기들이 “아직 어두울 때에(while it was still dark)”라는 구절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직 어두울 때, 우리 대부분이 그분의 길을 보지 못하는 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참 좋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의사가 제 어머니에게 밤에 관한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폐렴과 황달을 앓고 태어났는데, 의사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 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밤을 무사히 넘기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밤을 간절히 기도하며 보내야 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치유나 회복을 위해 기도했거나,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했거나, 하나님의 손길을 찾으며 보낸 그런 밤 말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기억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아직 어두울 때 하나님을 찾거나 기도했던 그때를 말입니다.

올해 저는 두 연회가 은혜의 해를 살아낸 방식을 귀하게 보았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기 전이라도, 선행(prevenient)의 은혜가 이미 역사하고 있음을 압니다.

은혜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순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한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은혜로 자라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지역사회에서 은혜롭게 탐구하고 사역하시는 방식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2026 년에 우리가 어떻게 더 깊은 공동의 삶을 나눌 수 있을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이라는 선교 사명을 공유합니다. 저의 삶은 그 사명에 사로잡혔고, 그 안에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또한 그 사명 안에서 변화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연합감리교회가 “담대하게 사랑하고, 기쁘게 섬기며, 용기 있게 이끈다”라는 새로운 비전 선언문을 채택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비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영적 초점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두려워하고 불신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자본 세력에 의해 분열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견보다 더 크다는 점을 잊기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의 일치를 다시 세우고, 지역 협력과 기능적인 시스템을 회복하며, 명절에 함께 식사하며 모일 때 다시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가 우리를 어둠으로 이끌고 있지만, 우리는 소망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큼니다.

저는 북일리노이에서 열린 여선교회(United Women in Faith)의 미션유(Mission U) 행사에 참석했을 때, “희망을 실천하기(practicing hope)”라는 주제의 공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이 시대의 도전이 영혼에서 시작된다는 점, 정치적 메시지가 특정 집단을 위협할 때에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리고 방향을 잡는지를 나누었는데, 그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마치 집단적인 '밤'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필요한 영적 초점은 무엇일까요?

Mission U에서 저는 '희망을 실천하는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본 아침 시간을 즐겼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곧 소망이라는 것,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소망이라는 것, 우리가 보는 것보다 항상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공동 삶이 곧 '희망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Renewed Hope UMC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코네스 마사(Martha)와 함께 앉았습니다. 그녀는 교회 재정의 거의 전부가 건물 유지에 쓰이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은 일로, 더 큰 존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예수께서 맡겨 주신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분별했습니다. 결국 건물을 팔고, "건물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신앙 공동체를 나누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역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근처 요양원에서 진행하는 강력한 사역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우리 사역 속에서 희망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독님 말씀대로라면, 거의 모든 교회가 35명 이하라면, 2026년의 주제를 '희망을 실천하기'로 삼아 기도하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어두운 시기에 우리가 희망을 실천한다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희망이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하는 것이라는 점이 참 좋습니다."

저는 먹고 있던 완두콩 수프를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감지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고립되지 않으며, 서로에게 증인이 되기로 결정할 때 우리는 희망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예식에서 묻는 질문처럼, "악과 불의와 억압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 그것을 거부하겠습니까?"라는 다짐을 실천함으로써 희망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교회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하려 할 때, 희망을 실천하며 분별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비전을 살아내고, 여전히 같은 사명에 사로잡혀 있겠지만, 두 연회가, 우리 지역이 함께 희망을 실천할 때, 우리는 이 순간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세례의 소망 안에 뿌리내려 있다고 믿습니다. 그 세례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창조성과 자유가 우리를 희망으로 이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피상적이거나 가벼운 '행복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에 뿌리 내린 삶이며, 세례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마음과 삶 속에 부어진 영원한 사랑입니다. 희망은 새로움을 허락합니다. 희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허락합니다. 희망은 우리 삶에 주어진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하게 합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 희망과도 관계를 맺고 있다고 믿습니다. 존 웨슬리는 우리가 의견이나 합의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태어나고 은혜로 자라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의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존엄을 지닙니다. 우리의 제자도는 그 자체로 인종차별에 맞서는 태도입니다.

올해의 끝자락을 은혜 안에 뿌리내리는 시간으로 삼고, 대림절과 새해를 맞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희망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부르고 계신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의 상상력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하나님, 포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 죽음에서 부활로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교회의 삶 속에서 어떻게 희망이 자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희망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며, 아직 우리 안에서 하실 일을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